

물아합일(物我合一) 예술과 만나다

March, 2016 | 김지미 기자

page 1 o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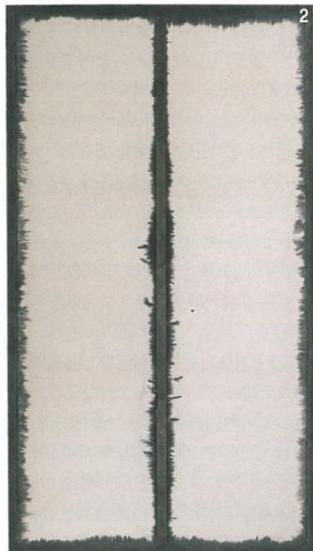
Culture Art

고 정창섭 개인전 | 2월 26일~3월 27일, 국제갤러리

물아합일(物我合一) 예술과 만나다

"한지와 만났을 때 느낌은 '만났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지와 만나자마자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지요...그래서 종이를 내가 표현하고픈 물성으로 택했을 때 나는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게로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창섭)

김지미 기자



1, Meditation 91108
2, Return 77-M
3, Tak 86921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이자 닥지를 차용한 추상 회화의 대가인 고 정창섭(1927~2011년)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이번 전시에선 정창섭의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30여 점의 대표 작품이 나온다. 그의 물어합일(物我合一)의 예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정창섭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는 회화에 있어 한국적인 전통을 찾아내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했다. 그가 작품을 시작할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급격한 현대화를 겪고 있었고, 이 과도기에 미술계에서는 국전을 중심으로 서양의 모더니즘이 이론적인 기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960년대 정창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회화운동인 앵포르멜과 같은 일부 서양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같은 세대 작가들이 제도권 미술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 추상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이 시기의 작품들은 유화물감으로 번짐 효과를 표현해 동양화의 수묵화와 같은 느낌을 탐구했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지'를 다루며 닥지 본래의 성질과 특징을 심도 깊게 탐구했으며 이와 어울리는 염색된 평면 작업을 시도했다.

옛 정취 살리는 매개체로 한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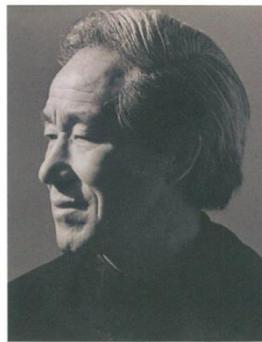
한지는 당시 가구, 서예, 부채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한지의 일종인 창호지는 외부 자연을 한 번 걸러 실내로 흡수하는 한옥에 요긴한 쓰임새를 지닌다. 정창섭은 이러한 한지, 특히 창호지에 대한 역할을 '안'과 '밖'의 양가적인 것을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로 상징하고, 잃어버린 옛 전통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서 한지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한지를 캔버스 위에 붙이고 자연스런 수묵의 번짐을 표현한 <귀> 연작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 표현을 모색하는 동시에 내면에 잠재된 옛적인 정취를 불러일으켰다. 1980년경부터 정창섭은 종이와 작품의 배경으로 한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원으로 거

슬러올라가 한지의 원료인 닥을 사용한 <닥> 연작을 시작했다. 그는 물에 불린 닥으로 닥 반죽을 만들어 캔버스 위에 올린 후 손으로 반죽을 펴고 두드려 미묘한 주름들을 만들어냈다. 이후 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닥이 가진 고유의 색과 주름으로 만들어진 대각선과 사선들이 드러나며 특유의 리듬과 조형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의지는 최대한 배제한 채 닥이라는 재료가 스스로 화면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작품 제작에 붓이 아닌 손을 활용해 닥을 주무르고 퍼바르며 신체적인 행위와 이에 따른 정신성이 물질과 동화되도록 했다. 즉, 작가의 자아가 반복되는 행위에 따라 물성에 녹아들어 거대한 종이의 장(field)이 된 캔버스 그 자체가 작품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박하고 정갈한 한국적 美 답아

1990년대에 시작한 <묵고> 연작은 질서정연한 그리드와 깊은 색의 활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정창섭의 작품세계를 종합한다. 닥을 미리 푼 상태에서 지주색, 남색, 갈색 등의 어두운 계열의 색으로 염색하여 마치 깊이 알 수 없는 색 속으로 침잠하는 듯한 효과를 표현했다. 또한 견고한 사각의 평면과 그리는 한지 작업의 시작이 되었던 창문의 구획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닥의 섬유질로 인한 풍요로운 질감과 대조를 이룬다. 닥의 입체적인 물성으로 '한지가 스스로 그리는 그림'을 만든 <묵고> 연작은 1990년대 후반 흑과 백의 금속주의적인 모노크롬으로 전개되면서 절대적인 정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꾸밈이 없고 기교가 배제된 색으로 한국인의 소박한 감성을 담은 이 연작은 2010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정창섭의 작품은 자아를 내려놓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로 돌아가 한지와 닥을 통해 한국적인 미의식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리지 않은 그림'이다. 작가는 "우리의 민족적 감성의 상징인 닥을 통해 나의 실존과 닥의 물성이 하나로 동화됨으로써 내 그림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작가 정창섭



1927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정창섭은 195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사물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큐비즘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낙조)로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단하였다. 박서보, 김영환 등 당시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혁신적으로 전개된 앵포르멜 회화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어떤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했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유화로 수묵화의 효과를 나타내며 순환과 원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통해 한국적 미의식을 표현한 <환> 연작을 시도했다. 그 외에도 정창섭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동 대학의 명예교수를 역임하였다. 1957년 '한국 현대 작가초대전' 창립전 이후 다양한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했다.